



#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 Update

### 요약

#### 1. 에볼라바이러스병, 콩고민주공화국 Ebola virus disease i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25.9.14. 기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 54명(사망 27명) 발생 보고

- '25년 9월 4일 선언된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은 9월 14일 기준 카사이(Kasai) 주 불라페(Bulape) 지역에서 총 54명(사망 27명, 치명률 50%)의 환자가 보고됨. 에볼라 유행이 발생한 불라페 지역은 지속적으로 주(Province) 및 국경 간 인구이동 발생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및 인접국 전파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현재까지 DR콩고 내 지역적 확산 및 인접국 전파 사례 보고는 없음
- 국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및 해외유입 사례 보고 없음. DR콩고를 포함한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 관리지역\* 방문자는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고, 귀국 후 잠복기(21일) 이내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할 것을 권고함

\* (아프리카 7개국)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 2. 호흡기 감염병, 뉴질랜드 Respiratory illnesses in New Zealand

'25년 뉴질랜드의 호흡기 감염병 발생 정점이 8월~9월(초봄)로 나타나 전년도(5월~6월)에 비해 늦춰짐

- 뉴질랜드의 '25년 호흡기 감염병 발생 정점이 예년(8월~9월)보다 늦게 나타나 초봄(5월~6월)에 접어들어 현재까지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지표가 계속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9.11.기준)
  - 병원체는 주로 인플루엔자 A·B, RSV, 그리고 지속되는 COVID-19가 함께 순환하는 '동시 유행(co-circulation)' 양상을 보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서둘러 완료하고, 아프면 등교·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손 위생과 기침 예절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함
- 국내 36주(8.31.~9.6.) 기준 호흡기 감염병 발생은 '24년 동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신규 1회 접종 원칙·인플루엔자와 동시접종 가능)과 9.22일부터 순차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권고하고, 고령층·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서는 실내 행사 자제·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를 안내 중임

### 3. 웨스트나일열, 미국 West Nile Fever in USA

#### 미국에서 웨스트나일열 발생이 예년 동 기간 평균 대비 40% 증가

- '25년 9월 초(9.9.)까지 미국 39개 주에서 웨스트나일열 발생 771명(신경계 침습 질환 사례 490명, 사망 39명) 보고함. '25년 여름, 미국 전역에서 웨스트나일열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예년 동 기간 평균 발생 대비 40% 증가함
  - 웨스트나일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콜로라도 주는 '25년(~9.9) 전국 웨스트나일열 발생의 19.4%(150명)를 보고했으며, 일부 지역 모기 감시 결과, 예년(1,000마리당 8마리)보다 높은 수치의 웨스트나일열 감염 모기 수(1,000마리 중 35마리)를 확인함
- 미국에서 웨스트나일열은 대부분 8~9월에 보고되고 있어 보건당국은 대중에게 모기물림 예방을 강조하고, 발생 증가 원인으로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비율의 증가를 언급함
- 국내에선 2012년 웨스트나일열 해외유입 사례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없으나,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예방 물품 준비,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권고

### 4. Clade 1b 엡폭스, 일본 Clade 1b Mpox in Japan

#### '25년 9월 일본의 최초 Clade 1b 엡폭스 유입 사례 보고

- 일본 고베시에서 일본 최초의 Clade 1b 엡폭스 유입 사례가 보고됨(9.16.). 최근 아프리카 여행력 있는 20대 여성으로 발진, 발열, 림프절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남
- 국내에서 2형 엡폭스 환자는 '25년 15명 보고(9.17. 기준), 1형 엡폭스의 국내 발생 및 해외유입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 엡폭스가 아프리카에서 지속 유행 중으로 엡폭스 유행 지역 방문 시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야생동물 접촉 및 섭취를 삼가며 오염된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권고

# 1. 에볼라바이러스병, 콩고민주공화국 Ebola virus disease i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발생 상황

'25년 9월 4일 선언된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은 9월 14일 기준 카사이(Kasai) 주 불라페(Bulape) 지역에서 총 54명(사망 27명, 치명률 50%)의 환자가 보고됨

- '25년 9월 4일 선언된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은 9월 14일 기준 카사이(Kasai) 주 불라페(Bulape) 지역에서 총 54명(사망 27명, 치명률 50%)의 환자가 보고됨(의심환자, 추정환자, 확진환자 구분 없음)<sup>1)</sup>
  - 54명 중 35명이 확진됐고, 그 중 16명이 사망함.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885명을 확인하여 모니터링 중임
    - ※ 바이러스 분석 결과 1976년 유행 당시의 바이러스와 유사(99.5%)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유행이 이전의 카사이 주 에볼라 유행('07년, '08년)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 유행 초기 등 감안할 때 발생 현황은 잠정적 수치로 당분간 수시 변동될 수 있으며, DR콩고에선 최근 산발적인 소규모 발생과 대규모 유행 보고됨('22.8월 1명, '22.4~7월 5명, '21.10~12월 11명, '21.2~5월 12명, '20.6~11월 130명, '18.5월~'20.5월 3,470명, '18.4~6월 54명 등)
- DR콩고 보건당국은 WHO 등의 기술 지원을 받아 불라페 지역에 이동식 실험실 장비를 배치하여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의심환자 신고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접촉자 추적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 불라페 종합병원에 에볼라 치료센터를 구축하여 에볼라 환자를 치료 중이며 현재까지 14명에게 에볼라 치료제(단클론항체, mAb114)를 투여함. 또한 9월 13일부터 고위험군(일선 의료인 및 접촉자) 우선으로 에볼라 백신(어베보, Ervebo) 접종을 시행하였고, 9월 14일 기준 의료 종사자 133명, 접촉자 150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함. 아울러 국제사회는 카사이 주에 에볼라 백신 43,840회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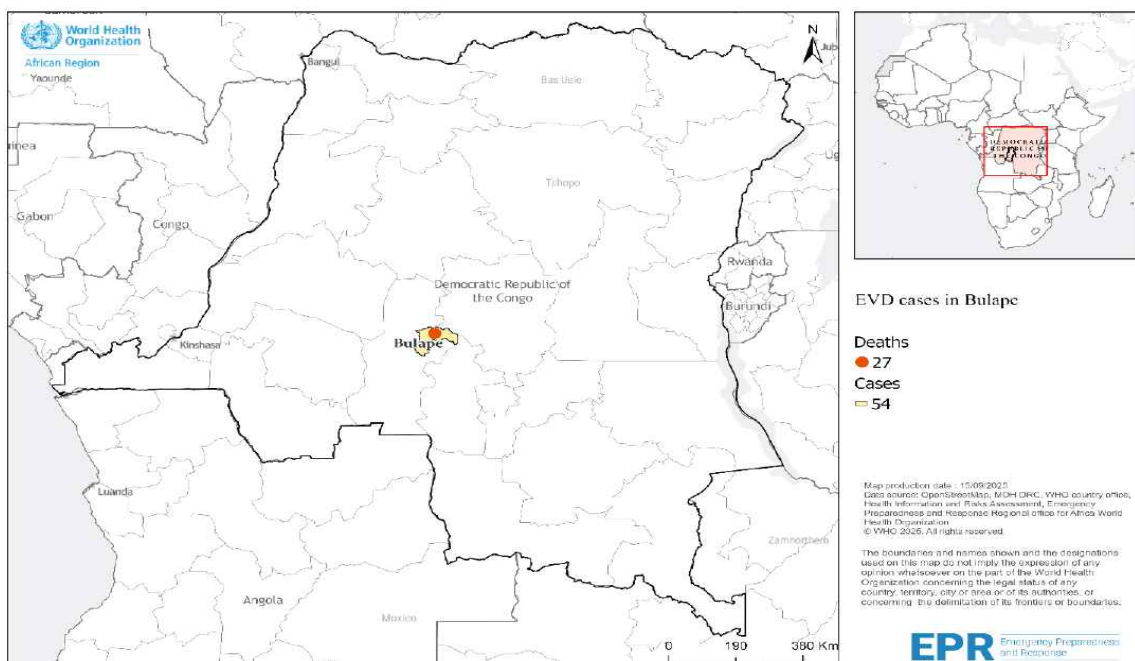


그림 1-1. DR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 발생 지역 (WHO/AFRO, '25.9.14.기준)

## 상황 평가

- 에볼라 유행이 발생한 볼라페 지역은 지속적으로 주(Province) 및 국경 간 인구이동 발생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및 인접국 전파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국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및 해외유입 사례 보고 없음. DR콩고를 포함한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방문자는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고, 귀국 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할 것을 권고함
- \* (아프리카 7개국)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 유행이 발생한 볼라페 지역은 지속적으로 주(Province) 및 국경 간 인구이동 발생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및 인접국 전파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현재까지 DR콩고 내 지역적 확산 및 인접국 전파 사례 보고는 없음<sup>1)</sup>. WHO는 이번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으로 인한 위험도를 DR콩고 ‘높음’, 아프리카 지역 ‘보통’, 전 세계는 ‘낮음’으로 평가(9.5.)한 바 있음<sup>2)</sup>
  - 국내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및 해외유입 사례 보고 없으며, 질병관리청은 DR콩고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을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있음. 해당 국가 방문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 접촉을 삼가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함. 귀국 후 잠복기(21일) 이내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할 것을 당부함<sup>3)</sup>
- \*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1) Ebola virus diseas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External Situation Report 01 (WHO/AFRO, '25.9.15.)

2) Ebola virus disease –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WHO DON, '25.9.5.)

3) 우간다 에볼라 유행, 국내 유입 방지 철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5.2.26.)

## 2. 호흡기 감염병, 뉴질랜드 Respiratory illnesses in New Zealand

### 발생 상황

'25년 뉴질랜드의 호흡기 감염병 발생 정점이 8월~9월(초봄)로 나타나 전년도(5월~6월)에 비해 늦춰짐(9.11.기준)<sup>1)2)3)</sup>

- 뉴질랜드의 '25년 호흡기 감염병 발생 정점이 예년(8월~9월)보다 늦게 나타나 초봄(5월~6월)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지표가 계속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9.11.기준). 특히 남부지역의 남섬(Te Waipounamu)에서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음
- 뉴질랜드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A-B, RSV, 그리고 지속되는 COVID-19가 함께 순환하는 '동시 유행(co-circulation)'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함. 여러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발생으로 지역사회 부담을 높였고, 그 중 남섬 지역 내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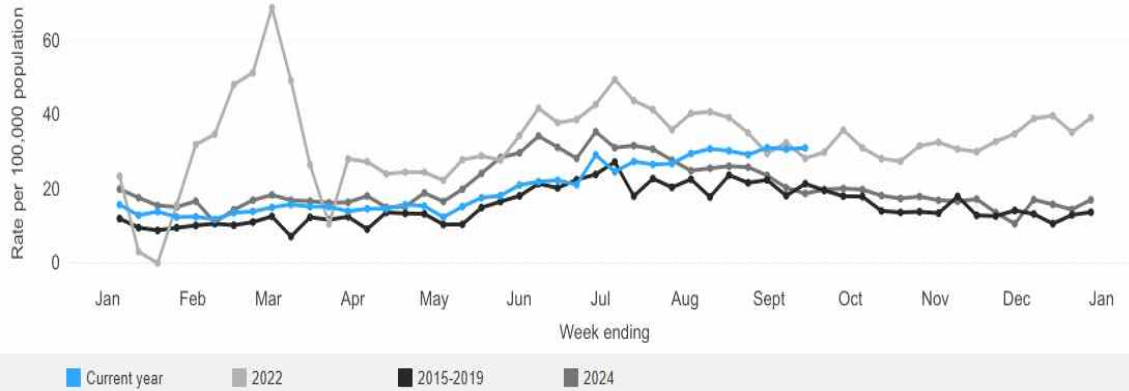


그림 2-1. 뉴질랜드 '15~'19 평균, '22년, '24년, '25년 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추이 (뉴질랜드 보건부, '25.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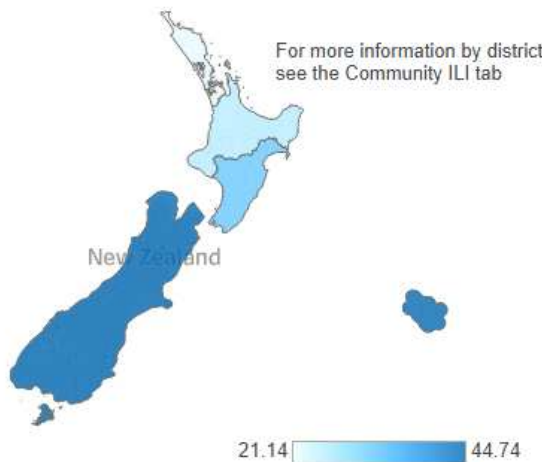


그림 2-2. 뉴질랜드 지역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전화상담률 (뉴질랜드 보건부, '25.9.11.)

## 상황 평가

- 뉴질랜드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서둘러 완료할 것을 권고하며, 아프면 등교·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손 위생과 기침 예절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함
  - 국내 36주(8.31.~9.6.) 기준 호흡기 감염병 발생은 '24년 동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신규 1회 접종 원칙·인플루엔자와 동시접종 가능)과 9.22일부터 순차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권고하고, 고령층·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서는 실내 행사 자제·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를 안내 중임
- 뉴질랜드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올해 호흡기 감염병의 정점 시기가 늦어졌지만 '22년~'24년 정점 때보다는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더 오래 지속되고 있는 완만한 양상에 가깝다고 평가함. 이에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서둘러 완료하고, 아프면 등교·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손 위생과 기침 예절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함
  - 또한 젊은 연령층의 발생 증가가 관찰되어 의료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뉴질랜드 보건 전문가들은 검사·병상·외래 수용 역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간 자원 배분 계획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 美CDC의 보고에 따르면 남반구에서의 호흡기 감염병 동향과 백신 효과 추정치는 동일 계통 바이러스가 북반구에서도 유행할 경우 다음 시즌의 활동 수준과 백신 효과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함. 단, 이것을 절대적인 예측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부연함<sup>4)</sup>
  - 국내 '25년 36주 기준(8.31.~ 9.6.), 호흡기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인구 1,000명당 6.6명으로 6월 이후 5명~6명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며, 유행 기준(9.1명)보다는 낮음. 급성호흡기 감염증 입원은 953명으로 전년 동기간(1,125명) 대비 감소,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은 210명으로 전년 동 기간(297명) 대비 감소했으며, 병원체는 코로나19(45.3%)가 가장 많았고, 파라인플루엔자·리노바이러스 순으로, 코로나19는 최근 5주 연속 증가 추세임<sup>5)</sup>
  -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실내 행사 자제·마스크 착용·증상 시 신속 진료를 권고 중이며, 고위험군 대상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9.22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9.29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임신부, 10.15일부터 65세 이상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 시작을 권고함<sup>6)7)8)</sup>

1) Respiratory illness dashboard (뉴질랜드 보건부, PHF Science, '25.9.11.)

2) Serious respiratory virus, including influenza and RSV, remain widespread across New Zealand as spring begins (뉴질랜드 보건부, PHF Science, '25.9.12.)

3) Delayed peak in respiratory illnesses reported in New Zealand; high influenza-like illness rates observed in the South Island (BEACONBIO, '25.9.13.)

4) Southern Hemisphere Flu Season Could Provide Clues on Upcoming US Flu Season (美CDC, '24.8.24.)

5) 2025년 36주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질병관리청, '25.9.11.)

6)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시작 예정 (질병관리청, '25.8.25.)

7)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 쓰기 등 예방수칙 꼭 지켜주세요! (질병관리청, '25.9.5.)

8) 보도자료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10월 15일 시작 (질병관리청, '25.9.16.)

### 3. 웨스트나일열, 미국 West Nile Fever in USA

#### 발생 상황

'25년 9월 초(9.9.)까지 미국 39개 주에서 웨스트나일열 771명 발생(신경계 침습 질환 사례 490명, 사망 39명). 올여름 미국 전역에서 웨스트나일열 발생이 급증하여 예년 동 기간 평균 발생 대비 40% 증가함

- '25년 9월 초(9.9.)까지 미국 39개 주에서 웨스트나일열 환자 771명 발생(신경계 침습 질환 사례\* 490명, 사망 39명)이 보고되었으며, 발생지역은 콜로라도 주(150명), 노스다코다 주(66명), 애리조나 주(53명), 일리노이 주(45명), 사우스다코다 주(43명), 미네소타 주(40명), 텍사스 주(32명) 등 순임<sup>1)</sup>
  - \* 임상증상에 따라 신경계 침습 질환과 신경계 비침습 질환으로 구분되며, 신경계 침습 질환 증상은 경수막염, 뇌염, 급성 이완마비 또는 급성 중추 혹은 말초 신경계 이상
- 미국에서 웨스트나일열은 일반적으로 6월~10월에 발생하며 매년 2,000명 이상이 진단되고 있으나, 올여름 미국 전역에서 웨스트나일열 발생이 급증\*하여 예년 동 기간(1월~9월 초) 평균 발생(환자 550명, 신경계 침습 질환 사례 350명) 대비 40% 증가함. 또한 현재 웨스트나일열 유행 초기 단계인 관계로 추가적인 환자 보고가 많을 것으로 추정함<sup>2)</sup>
  - \* (7.15. 기준) 15개 주에서 누적 49명 발생, 신경계 침습 질환 사례 24명(49.0%) → (8.19. 기준) 33개 주에서 누적 320명 발생, 신경계 침습 질환 사례 188명(58.7%) → (9.9. 기준) 39개 주에서 누적 771명 발생, 신경계 침습 질환 사례 490명(63.3%)
- 웨스트나일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콜로라도 주는 '25년(~9.9) 전국 웨스트나일열 발생의 19.4%(150명)를 보고했으며, 지난달 콜로라도 주 내 포트 콜린스 지역의 모기 감시 결과, 예년 (1,000마리당 8마리)보다 높은 수치의 웨스트나일열 감염 모기 수(1,000마리 중 35마리)를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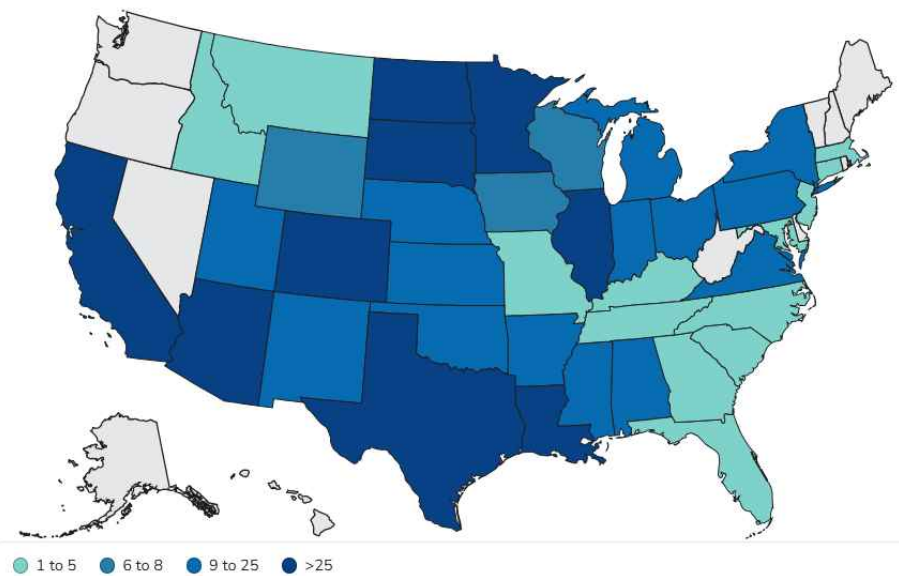


그림 3-1. '25년 미국 주별 웨스트나일열 감염 사례 발생 분포(美CDC, '25.9.9.)

## 상황 평가

- 美CDC는 웨스트나일열 환자 증가의 원인으로 바이러스 감염 모기가 증가한 점을 언급하였고, 대중에게 모기물림 예방 및 야외 활동 시 기피제 사용을 강조함
- 국내에서는 '12년 웨스트나일열 해외 유입 사례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없으나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국을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예방 물품 준비,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권고

- 미국에서 웨스트나일열은 1999년 뉴욕에서 처음 보고된 후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어 2003년에 발생 점정을 보이며 약 1만 명의 사례가 보고됨.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000명의 사례가 보고 되었으며, 이 중 1,200명은 중증 질환인 신경계 침습 사례이고 약 120명이 사망함<sup>1)</sup>
- 美CDC 관계자는 '25년 사망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발생 초기 시점으로 사망 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음. 웨스트나일열 발생 증가는 모기 수의 증가보다는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비율의 증가 영향으로 보이며, 모기 감염률은 기온, 강수량, 방제 활동 정도, 감염된 새의 수와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함
- 주된 모기활동 기간인 여름~가을에 주로 웨스트나일열에 감염되지만, 전문가들은 기온이 따뜻해짐에 따라 모기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sup>2)</sup> 보건 당국은 대중에게 모기물림 예방 및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을 강조함
- 국내에서는 '12년 웨스트나일열 해외 유입 사례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없음.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예방 물품 준비,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1) 美CDC West Nile virus Current Year data (2025) (美CDC, '25.9.9.)

2) West Nile virus cases surge 40% higher than normal in US during peak season (Fox News, '25.9.15.)

3) Map shows West Nile virus cases as officials warn season isn't over (CBS News, '25.9.11.)

4) West Nile virus cases running higher than normal, prompting health warnings (Toronto Star, '25.9.10.)

### 4. Clade 1b 었폭스, 일본 Clade 1b Mpox in Japan

#### 발생 상황

일본 고베시에서 일본 최초의 Clade 1b 었폭스 유입 사례가 보고됨(9.16.). 최근 아프리카 여행력 있는 20대 여성으로 발진, 발열, 림프절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남

- '25년 9월 일본 고베시에서 Clade 1b 었폭스 유입 사례 발생을 보고함(9.16.) 최근 아프리카를 여행한 20대 여성으로 발진, 발열, 림프절 부종 등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진료(9.12.) 후 검사에서 확진됨(9.13.)<sup>1)</sup>
- 환자의 증상은 호전 중이며, 현재까지 밀접 접촉자 중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한 사례는 없어 고베시 보건당국은 2차 감염이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sup>2)</sup>
- 일본에서 었폭스 발생은 2022년 7월에 첫 번째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24년 이후에는 산발적인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22년 7월 25일부터 '25년 9월 12일까지 보고된 었폭스 환자 254명은 모두 2형 었폭스로 확인됨. 이번 Clade 1b 었폭스 유입 사례는 일본에서 보고된 최초의 1형 었폭스 사례임<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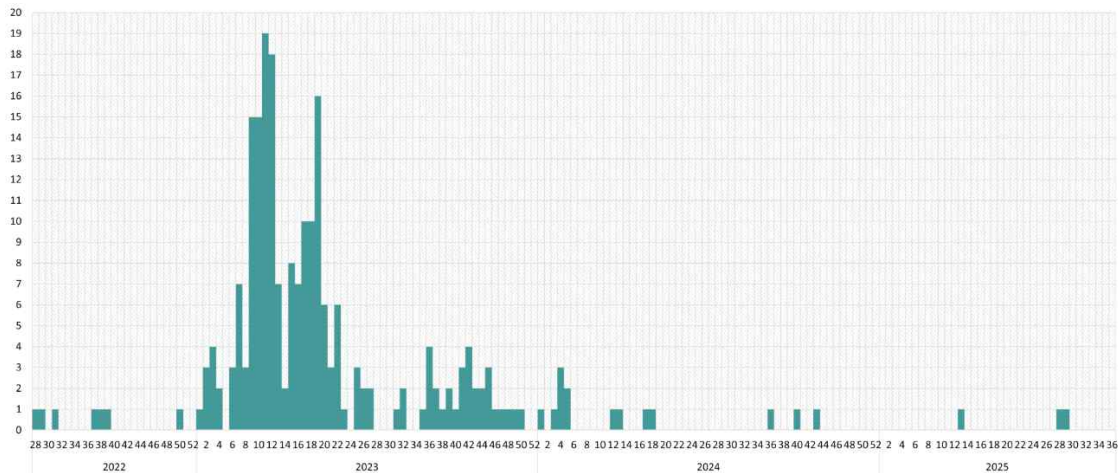


그림 4-1. '22.7.25.~'25.9.12. 일본 주간 었폭스 확진자 발생 현황 (일본 후생노동성, 9.12. 기준)

#### 상황 평가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Clade 1b 었폭스 지역사회 발생이 지속 중이며, 아프리카 외 지역으로의 유입 사례도 산발적으로 보고되어 현재 중국, 일본 등 20개국에서 Clade 1b 었폭스 발생 보고됨
  - 었폭스 유행 지역 방문 시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며 오염된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권고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우간다, 케냐 등에서 Clade 1b 었폭스 지역사회 발생이 지속 중이며, 아프리카 외 지역으로의 유입 사례도 산발적으로 보고되어 '24년 이후 총 20개국\*으로 유입 및 그로 인한 가정 내 전파, 지역사회 감염 등 113명의 Clade 1b 었폭스 환자 발생이 보고됨 ('25.9.16.기준)<sup>4)</sup>
- \* 중국(29명), 영국(21명), 독일(11명), 인도(10명), 벨기에(6명), 태국(6명), 카타르(5명), 미국(5명), 튀르키예(4명), 프랑스(3명), 호주(3명), 아랍에미리트(2명), 캐나다(1명), 오만(1명), 파키스탄(1명), 스웨덴(1명), 브라질(1명), 스위스(1명), 이탈리아(1명), 일본(1명)

- 국내에서 2형 었폭스 환자는 '24년 17명(국내발생 15명, 해외유입 2명), '25년 15명(국내발생 13명, 해외유입 2명) 보고되었으며(9.17. 기준), 1형 었폭스의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sup>5)</sup> 었폭스가 아프리카에서 지속 유행 중으로 었폭스 유행 지역 방문 시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야생동물 접촉 및 섭취를 삼가며 오염된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권고함<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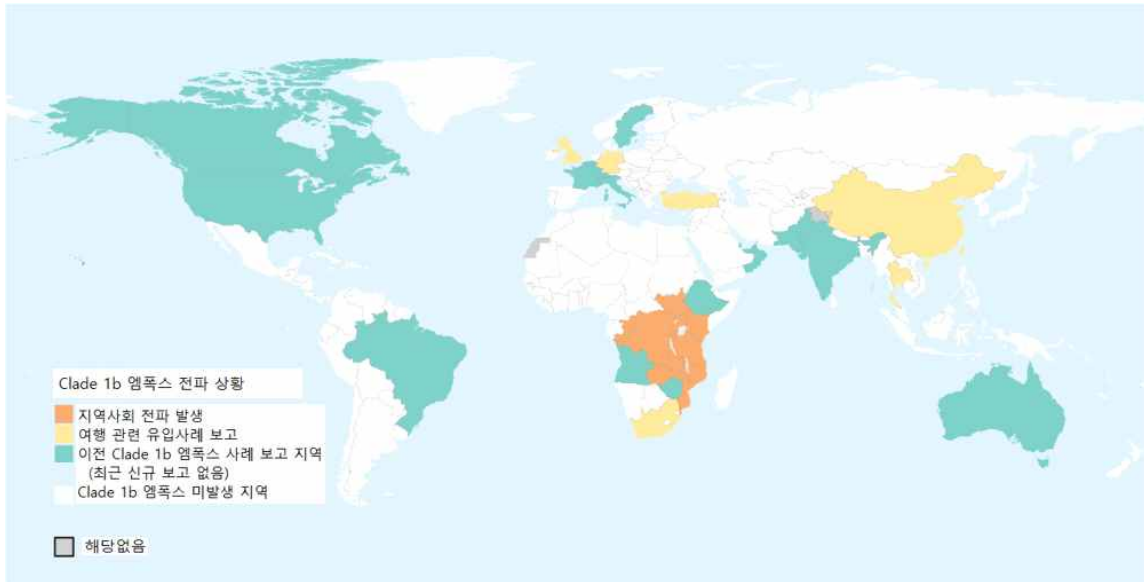


그림 4-2. 전 세계 Clade 1b 었폭스 발생 지역 현황 (WHO, 9.12. 기준)

1) 보도참고자료 | 엠포क्स (클레드 1b) 의 환자의 발생について (일본 후생노동성, '25.9.16.)  
 2) 언론보도 | 日本确认国内首个M痘 Clade 1b 感染病例 (신화통신, '25.9.16.)  
 3) 었폭스 - 일본 발생 현황 (일본 후생노동성, '25.9.16.)  
 4) WHO Global Mpox Trends (6.2.) (WHO, '25.9.12.)  
 5)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25.9.17.)  
 6) 보도참고자료 | 었폭스 국내 발생은 안정적,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비·대응 강화 (질병관리청, '24.8.26.)

## 참고사항

### 전 세계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현황('25.9.17.기준)

구분	발생 상황
주간 신규 발생 (25.9.11.~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발생 없음</li> </ul>
'25년 발생 (9.17.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국에서 29명 발생(사망 11명)</li> <li>- 캄보디아(15명, 사망 8명), 미국(4명), 방글라데시(4명), 인도(2명, 사망), 중국(1명), 영국(1명), 베트남(1명), 멕시코(1명, 사망)</li> </ul>
전 세계 누적 발생 (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개국에서 992명 발생(사망 476명, CFR 48%)</li> <li>- 미국(71명, 사망 1명), 캄보디아(87명, 사망 51명), 중국(57명, 사망 32명), 방글라데시(12명, 사망 1명) 등</li> </ul>
주요기관 위험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O(7.28.) 및 ECDC(7.4.)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에 대한 공중보건 위험을 “낮음”, 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감염 위험을 “낮음-중간”으로 평가함</li> <li>· 미CDC(2.28.)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구(개인 및 집단)의 건강 위험은 낮으나, 감염된 동물이나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중간-높음”으로 평가함</li> </ul>

#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대륙별 감염병 등 건강정보 소책자)

## 1. 내용 및 구성

- ① 대륙별 필수·권장 예방접종 정보, ② 주의 감염병별 원인·증상과 예방법, ③ 현지 주의사항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 ④ 현지 대사관 연락처 등 **여행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유의 사항**
- 총 5종(아프리카/중남미/중동·북아프리카/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 2.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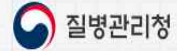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 혹은 QR코드 활용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아프리카/중남미 2종에 한함)
  -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누리집(nqs.kdca.go.kr)에서 기관 목록 확인

### 《해외여행객 대상 대륙별 건강정보 소책자 목록》

 <p>건강하고 안전한 아프리카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p>건강하고 안전한 중남미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p>건강하고 안전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 지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p>건강하고 안전한 동남아시아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p>건강하고 안전한 서남아시아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p>〈소책자 pdf자료 내려받기〉 검색창에 '건강정보 소책자' 검색</p>  <p>〈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목록〉</p> 
동남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2024.8.19.



#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0.1% 수준이나,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지켜주세요!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2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 3 기침할 땐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기
- 4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5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지켜주세요!



- 1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 2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 자제하기
- 3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기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
- 4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쉬는 문화 만들기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해외여행 시에는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덴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주의하세요!**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 1** 여행 전 국가별 감염병 발생현황 및 주의사항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2** 모기 퇴치용품(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및 긴바지 등) 사용하고, 풀숲 및 산속 등 모기 많은 곳 방문하지 않기
- 3** 귀국 뒤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여행력 알리고 치료받기  
\* 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 4** 남녀모두 **6개월간** 성접촉 피하기  
해외여행 후 4주간 헌혈이 금지되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는 귀국 후 6개월간 임신 연기 및 성접촉 피하기

## 말라리아 예방수칙

# 말라리아 예방수칙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사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활동 자제**

**야간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야외활동 후  
샤워**

「전 세계 감염병 동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 감염병소식 > [주간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